

나에게 용기를 가르쳐준
가시소년에게



안녕, 가시소년!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여름날, 너는 잘지내고 있니? 나는 요즘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해. 친구와 마음이 안
맞아서 며칠 전에 싸웠는데 아직 사과를
못했거든. 4학년 처음 올라와서 친구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낼 때였어. 그 때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줘서 정말 기뻐했거든. 혼자 등교를
하다가 친구가 생기니까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
그런 뒤에 그 친구를 포함해 4총사를 만들어 맨날
놀이 다녔어. 그런데 함께 놀아다니지 못하게 되니,
엄청 어색하고 불편해. 가시소년아! 나도 너처럼
용기를 내볼까 생각 중이야. 너는 친구를 사귀려고 고민을
하고, 용기를 내어 가시를 떼어내면서 말을 했었잖아. 우선
가시를 떼어 내면 ‘나도 웃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고,
가시를 떼어내면서 ‘사랑해.’ ‘나를 안아주세요.’ ‘나랑 놀자’
등 예쁜 말들을 했잖아! 나도 내 방에서 혼자 친구에게
사과할 말을 연습해 보았단다. ‘내가 미안해. 이전처럼 사
이 좋게 지내자.’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사과하는 장면이 자연스럽
게 떠올르고 말도 입 밖으로 술술 잘 나올 것 같았는데,





막상 잘 안 되어 당황스러워.
가시소년!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너도
잘 알았겠지?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다니, 생각해 봐도 멋있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본받아 내일 당장 친구에게
사과를 해볼게. 네가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니?
네가 없었다면 나도 친구에게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거야. 사과를 어떤 방편
으로 하면 좋을까? 친구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해볼까?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볼까? 가시소년, 네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려고 고민하던 것처럼 나도 오늘 밤까지
글을 이 생각해 볼게. 내가 책을 읽는 동안
너를 응원 했던 건 기억하니?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친구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용원을 해줄 거지?
부탁해! 내일 학교에 다녀와서 친구
에게 사과했던 일을 가시소년, 너에게 말해
줄게. 안녕!

2023년 7월 14 일

